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연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형제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미정	강교현	수 10am
	ACA	김행자	목 10am
다문화	나진	김릴리	수 4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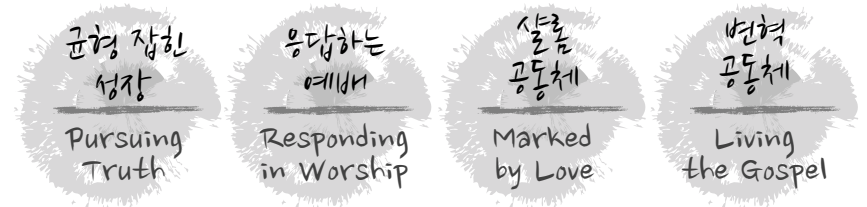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일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5/28	6/4	6/11	6/18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장경민, 박주애 / 박영미, 유재연	임은숙, 최정아 / 이찬미, 황진희	신윤선, 이주영 / 이윤경, 이창열	장경림, 최설아 / 김새롬, 전해경
주차 봉사	Rick Geib/대호	Chris Steenkolk / 이장춘	황호세/전동명	변동준/박진환
예배 안내	레바논 (5월) & 메나 (6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부활의 삶: 자비롭지 못한 종

Resurrected Living: The Unmerciful Servant

본문: 마태복음 18:21-32
설교: 모리시오 리바스 목사

마태복음 18장 21-32절

- (21절)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 (23절)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썸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 (24절) 왕이 썸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 (25절)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 (26절)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 (27절) 주인은 그 종을 가없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 (28절)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멍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 (29절)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 (30절)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 (31절)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 (32절)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이며 자비이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파괴하는 원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분명히 용서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우리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내려 깊이 자리 잡게 되고 종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

1.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는 몇번이나 용서해주어야 합니까? How often do we have to forgive people who offend us?
2.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주십니까? How does God forgive us when we fail?
3.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What happens when you do not forgive people with all your heart?
4.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unforg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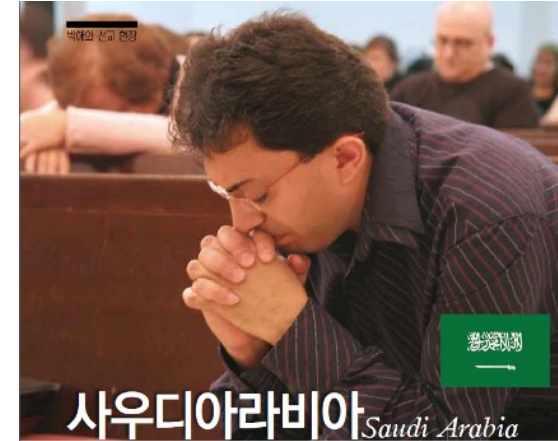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핍박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

변혁사역팀

핍박받는 전 세계 크리스천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이하, 오픈도어) <https://www.opendoors.or.kr/> 는 매년, 국가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합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지난해 1억 명에서 올해는 1억 3천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 박해로 연간 7000여명이 희생됩니다. 공격을 받은 교회도 작년보다 약 두 배 많은 2,300여 교회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해는 단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겪는 모든 종류의 적대적 경험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삶, 지역사회, 국가와 교회생활의 범주에서 발생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의 크리스천 박해 상황을 알려 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 종교 : 이슬람교
- 인구 : 약 3천 3백만명, 기독교인 1.4백만명
- 박해정도: 매우 극심함. 세계박해순위 14위
- 주 박해요소 :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민족적 적대감(Ethnic antagonism)

사우디아라비아는 박해 점수 76점으로 2017년 세계박해순위 (WWL) 14위에 올랐다. 지난 2016년 세계박해순위에서도 동일하게 76점에 14위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독교 박해상황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교회 건축이 일체 금지된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은 극에 달하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 폭력지수는 작년 대비 하락했다. 압력지수는 새로 입수된 관련정보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소폭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최종 박해 점수는 작년과 동일한 값으로 산출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박해상황

이슬람교의 탄압(Islamic oppression): 사막왕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근본주의, 즉 이슬람 교리를 엄격히 준수하는 와하비즘(Wahhabism)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가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성지인 메카(Mecca, 이슬람의 창시자인 예언자 무함마드의 출생지로 알려진 사우디아라비아 종교, 행정, 상업 중심지)와 메디나(Medina, 무함마드의 묘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내륙 도시)를 관할한다. 사우디 정부는 왕실 통치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이슬람 무장 세력과 투쟁 중에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재정으로는 외국 이슬람 무장 세력을 후원하고 있으며, 이라크(Iraq)와 시리아(Syria) 등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이슬람 수니파(Sunni, 이슬람 최대 종파)의 무력 충돌의 주요 근원지 중의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체계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배교(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 행위로 기소된 국민은 개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민족적 적대감(Ethnic antagonism): 민족적 적대감은 전형적으로 사회 구성원에게 민족 내부의 오래된 규범 및 가치를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압력을 형성시킨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민족적 적대감은 이슬람 사상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는 특히 무슬림 출신의 기독교 신자(Muslim Background Believers, MBB)에게 타격을 가져온다.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박해 개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독교 박해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압력지수는 가족 영역을 제외하고 모두 극단적인(extreme) 수준을 기록했다. 가족 영역의 압력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대부분 홀로 사우디에 와있는 외국인과 이민자 기독교인들은 가족으로 인한 핍박을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균치가 낮춰진 것이다.
- 교회와 국가 영역의 압력은 가장 극단적인 수준이다. 이는 이슬람교의 탄압 요소로 박해 받는 국가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이슬람교의 탄압과 혼합된 민족적 적대감 요소로 인한 압력은 주로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영역에 반영되며, 특히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MBB들에게 강하게 반영된다.



- 접수된 폭력 사건은 2016년보다 적었다.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었다거나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피습되었다는 확인된 소식 입수건이 작년보다 적었다. 폭력 지수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사우디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을 극도로 조심하기 때문이다.
- 전체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기독교 박해 상황은, “모든 국민이 무슬림일 것을 요구하는 국가에서, 주민모두에게 사회와 정부로부터 강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묘사할 수 있다.



***개인 영역:** 무슬림배경신자들(MBBs)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개종한 신앙 이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을 전도 하지 않는 한, 사우디에 거주하는 기독교 외국인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민 노동자들은 신중히 행동해야 하며, 박해는 노동자 수용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민 노동자들의 종교와 태도에 달려 있다.

***가정 영역:** 모든 사우디인들은 무슬림에 속한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이슬람을 떠나 는 것을 큰 수치로 여긴다. 무슬림배경 신자들(MBBs)은 신앙이 발각되면 가정과 지역 사회로부터 물리적 폭력과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그리스도 인들이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독교식 결혼은 축하 받지 못하며, 무슬림배경 신자들은 반드시 이슬람 예식에 따라 결혼해야 한다. 무슬림배경신 자들의 자녀는 기독교인으로 등록될 수 없으며, 기독교식 이름을 지을 수 없다. 학교에 서 무슬림배경신자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슬람 수업에 참석해야 한다. 이혼으로 인 한 자녀 양육권과 유산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무슬림배경 신자들은 불이익을 받는다.

***공동체 영역:**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양한 차별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게끔 압력을 받고 있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자신의 신앙이 직장에서 알려지게 되면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 게 된다. 타종교 신자들에 대한 반감이 사우디 사회에 팽배해 있다. 기독교 인들을 포함 해 이민 노동자들은 직장내 상사들로부터 언어적, 물리적, 성적 학대에 노출 돼 있다. 지

역사회는 국제학교에서 방학 동안 성 탄절과 새해와 같은 반이슬람적인 휴일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법을 위반하는 학교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국가 영역:** 사우디 헌법과 기본법 에는 종교의 자유가 명시돼 있지 않 다. 법률제도는 샤리아(Sharia) 법 을 기반으로 하며, 이슬람 외에 다 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은 사형에 처 해질 수도 있다.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인들 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 다. 무슬림배경신자들의 신앙이 알

려지게 되면 당국에 조사를 받게 됨 으로서 더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 기독교 외국인들과 이민자들이 무슬림을 개종시키려 한다면, 감옥에 감금되거나 강제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삶의 영역 안에 큰 문제에 직 면하게 된다.

***교회 영역:** 사우디아라비아 안에는 교회건물이 없으며, 예배는 은밀한 곳에서 드려진 다. 사우디 정부는 공식적으로 비무슬림자들의 예배를 허용하고 있지만 종교경찰인 무 타와(Muttawa)는 이러한 법률적 권리를 준수하지 않는다. 예배는 성별을 엄격하게 분 리함으로써 다른 가정의 남자와 여자들과 함께 한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것이 공식적인 법안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종교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 나 타나고 있다. 무슬림을 개종시키는 행위와 성경훈련, 아랍어로 된 성경 및 다른 기독교 관련 문서들을 편찬하거나 수입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폭력:** 비록 교회 습격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 됐던 작년보다 올해 기독교박해지수 가 낮아지긴 했지만 반기독교적 폭력 면에서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작년과 달리 올해 박해지수에는 강간과 성희롱 문제가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사우디 가 정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기독교 이주 노동자들 에게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많 은 무슬림배경신자들이 가정과 주위사람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그 들의 신앙이 알려지는 순간 주위로부터 격렬한 반응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두려움에 놓이 게 된다.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육체적 학대와 위협을 경험했다는 많은 보고서가 있다. 또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국을 떠나 도록 강요 받는다. 무슬림배경신자들은 이슬람을 배교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는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으며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 면, 배교의 이유로 비공식적인 처형 이 자행되고 있다고 한다. 규정 외의 법률적 살인 위험이 가정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자료출처: <https://www.opendoors.or.kr/>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2017년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17년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모든 말씀과 특강은 한인부 홈페이지에서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으로 인해 그 사랑이 우리의 소명으로 연결 되길 바라며, 집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지체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 2017년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2017년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이 지난 주일로 종강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과 은혜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어린이 돌봄으로 섬겨주신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 빌리지 한인부 새가족반 (5/27-6/17)

빌리지 한인부 새가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 일시: 5월 27일 - 6월 17일, 토요일, 4주간 @ 6:30-8:30pm
- 장소: Willamette A
- 문의: 조희정 자매 & 이청호 형제

4. 한인부 수요일에 어린이 돌봄 (5/17-9/6)

AWANA 방학기간 중, 한인부 수요일에 시, 4세에서 5학년 어린이 돌봄으로 봉사해주실 지체들을 모집합니다. 해당기간 중, 단 한 차례라도 함께 섬김으로 참여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어린이 사역팀의 황진희 자매님께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빌리지 한인부 형제모임 (Men's Night, 6/10-11)

빌리지 한인부 형제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Men's Night Camping이 있으며, 형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 일시: 6월 10-11일 (토-주일)
- 장소: Nehalem State Park, OR
- 참여비: \$30
- 문의: 전동명 형제 & 이청호 형제 (활동사역팀)

6. Memorial Day (5/29)

공휴일 관계로 금주의 월요 새벽기도회와 월요 중보기도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7. 날마다 솟는 샘물 (6월호)

6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예배후 로비의 안내데스크나 헬로우십에서 수령해주시시오. (\$4/권)

@ 지역사회

1. 북한을 위한 기도모임: Reah International

북한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위해 기도하는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소그룹 기도 모임이 있으며, 성도님들을 초청드립니다. 모임은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일시: 6월 33일 (토) 2pm
- 장소: 빌리지 침례교회, Willamette A
- 주최: Reah International (www.reah.org)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 1)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도와줄 Mosaix Global Network과 잘 협업할 수 있도록.
- 2) 지난 월요일 테러 공격을 받았던 영국 맨체스터 공동체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가족들이 슬픔과 분노, 아픔,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폭력과 증오의 행동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빌리지 대학 특별 세미나 : 성경 장르 분석 (6/3(토), 9am to 3pm @ Columbia A)

Adam Christian (Western Seminary 신학 대학원 신약 전공)이 이끄는 특별 세미나에서는 성경의 장르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장르 분석 원리를 배우고, 성경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등록: vu.vbconline.org)

3. 반즈 초등학교 정원 청소 (6/3(토), 11am-1pm, 점심 제공)

학기가 끝나감에 따라 반즈 초등학교에서 학생 정원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원 청소를 도와주실 분들은 장갑과 정원 도구를 가지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문의: Insil Kang, insilk@vbconline.org)

4. 정신 건강 세미나 (Heart & Mind Ministry, 6/4(주일), 4-6pm @ Willamette)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가한 빌리지 성도들의 80%가 본인이나 지인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Heart & Mind Ministry:Light Talks는 정신과 의사, 카운슬러들을 모시고 정신 건강에 관해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시간입니다.

5. 여름 성가대 콘서트 & 디저트 (6/11(주일), 5-7:30pm)

오는 6월 11일 빌리지 성가대가 New Orleans에서 오신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인 Dr. Benjie Harlan을 모시고 정기 여름 성가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가 중간 휴식시간에 Columbia Rooms에서 디저트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2017 헌금 업데이트

4월 헌금 참여자	562 (잠재 참여자 900+)
1-4월 예산	\$1,077,731
1-4월 헌금	\$950,146
4월 헌금	\$249,721
5월 1-21일 헌금	\$171,711

* 헌금 참여자 (giving participant) 란?
헌금을 내는 1인 또는 1가정을 뜻하며, 대학생 한 명을 1헌금 참여자,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정을 1헌금 참여자, 부부를 1헌금 참여자로 간주합니다.

빌리지 대출 (10년)	\$3,289,364
빌리지 대출 (5년)	\$1,991,990